

ICT산업 2017년 1분기 동향

I. ICT산업 수출 현황	1
II. 반도체 산업동향	4
III.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9
IV. 휴대폰 산업동향	12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요약 >

< ICT산업 수출 현황 >

□ '17년 1분기 ICT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한 440.3억 달러

○ 수출증가율은 '16년 1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며 '17년 1분기에는 수출 호조로 큰 폭의 증가율을 달성

-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7.0% 증가한 205.3억 달러로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76.3% 증가하면서 성장을 견인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한 70.2억 달러로 LCD 패널 가격 안정화, OLED 수출 증가가 성장을 견인

-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5% 감소한 46.9억 달러로 수출 부진 지속

< 반도체 >

□ 1분기 D램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5.0% 증가한 141.3억 달러, 낸드플래시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7.7% 증가한 119.1억 달러

○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수요증가, 가격 강세*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됨

*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2배, 낸드플래시 가격은 17% 이상 증가

□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에 미국, 한국, 대만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도시바의 협력사인 웨스턴디지털의 제소로 매각이 지연될 전망

□ 중국기업의 해외 M&A에 대해 각국의 견제가 강화되자 중국은 자체 투자를 통한 역량 확보를 추진

○ 산업 구조조정 및 자체 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칭화유니그룹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 7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

< 디스플레이 >

□ 1분기 대형 LCD 패널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1.9% 증가한 158.1억 달러

-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6.5%, 평균 판매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23% 증가하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됨

□ 우리기업의 대형 LCD 패널 시장점유율은 43%로 전년동기 대비 4.4%p 하락했으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9% 상승

- 삼성디스플레이의 LCD 7세대 라인 생산중단으로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은 하락했으나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를 통해 매출은 증가

□ LCD 패널은 2분기부터 8세대 신규라인 가동이 확대되면서 가격상승률이 둔화될 전망

< 휴대폰 >

□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한 347.4백만대

-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략폰이 출시되지는 않았으나 개도국 수요 증가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삼성전자가 1분기만에 애플로부터 1위를 탈환했으나 출하량 증가율은 0%로 중국 3사의 출하량 증가율 24.8%와 대비됨

□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애플 및 중국기업의 인도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기업과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기업의 고속성장과 애플의 현지생산은 우리기업에게 위협요인
- 우리기업은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도시장 수성이 중요한 상황이며 기업들은 시장 고도화와 현지화로 경쟁력 제고를 추진

I. ICT산업 수출 현황

□ '17년 1분기 ICT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8.2% 증가한 440.3억 달러

- 수출증가율은 '16년 1분기에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회복세를 보였으며 '17년 1분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 호조로 높은 증가율을 달성

< ICT산업 분기별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7.0% 증가한 205.3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6.3% 증가한 132.1억 달러
 - 가격 상승, 서버용 수요 증가, 스마트폰 탑재용량 증가로 인해 수출 호조세를 지속
-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9% 증가한 57.3억 달러
 - 수출증가율은 '15년 4분기부터 역성장하였으나 '17년 1분기에는 파운드리, 팹리스 등의 물량 증가로 성장세로 전환됨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반도체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5.1분기	154.1	7.4	82.7	11.2	53.5	24.7	7.7	△16.3	56.4	5.1
2분기	155.8	4.7	81.7	△0.2	50.0	9.1	6.6	△38.9	59.6	16.1
3분기	164.5	3.5	90.8	0.7	47.6	△10.5	6.7	△32.3	57.8	8.6
4분기	154.8	△11.6	82.7	△11.5	41.6	△29.1	6.1	△37.8	57.6	△14.0
16.1분기	139.7	△9.3	74.9	△9.4	39.6	△26.0	6.4	△16.9	49.4	△12.3
2분기	147.2	△5.5	81.6	△0.1	40.0	△20.0	7.3	10.6	48.8	△18.1
3분기	162.9	△1.0	91.5	0.8	40.3	△15.3	7.6	13.4	54.5	△5.7
4분기	172.4	11.4	104.3	26.1	46.9	12.7	7.4	21.3	52.0	△9.7
17.1분기	205.3	47.0	132.1	76.3	55.3	39.6	9.3	45.3	57.3	15.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5.3% 증가한 70.2억 달러

○ LCD 패널 가격 안정화, OLED 수요 증가로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2분기 연속 증가세를 유지

-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1% 증가한 16.9억 달러를 달성

<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 1분기
패널	금액	83.0	86.6	82.2	74.3	60.9	64.5	73.9	75.3	70.2
	%	0.1	△0.6	△7.0%	△18.5	△26.6	△25.5	△10.1	5.6	15.3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7.5% 감소한 46.9억 달러로 수출 부진 지속

- 상반기 전략폰 출시시기 변화로 인한 기저효과로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9.9% 감소한 16.9억 달러

* ('16) 갤럭시 S7 : 3/11, G5 : 4/1 → ('17) 갤럭시 S8 : 4/21, G6 : 4/7

- 부분품 수출은 현지 조달 확대에 의해 전년동기 대비 19.9% 감소한 30.1억 달러를 달성

< 휴대폰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 1분기
휴대폰	금액	60.8	73.2	71.9	84.4	61.6	64.9	55.9	60.9	46.9
	%	△7.9	12.6	10.6	23.4	1.2	△11.2	△22.3	△11.0	△27.5
스마트폰	금액	21.4	29.8	24.4	27.8	24.1	25.2	15.4	16.8	16.9
	%	△37.2	△0.7	△17.3	△5.1	12.6	△15.4	△36.9	△42.9	△29.9
부분품	금액	39.5	43.3	47.4	56.5	37.6	39.7	40.5	44.2	30.1
	%	25.8	26.2	34.7	46.4	△4.8	△8.3	△14.6	14.5	△19.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1분기 ICT 무역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30.0% 증가한 203.0억 달러

- 반도체(107.3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56.1억 달러), 휴대폰(20.4억 달러), TV(6.6억 달러)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흑자를 유지

< ICT산업 분기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 체 산업			전 체 산업			전 체 산업	ICT 산업
			ICT산업	증감률		ICT산업	증감률		
2015	연 간	5,271.6	1,728.9	-1.9	4,368.1	913.2	3.6	903.5	815.6
2016	1분기	1,159.7	372.9	-11.0	936.1	216.7	-3.4	223.6	156.2
	2분기	1,261.5	391.4	-9.9	986.9	216.0	-1.4	274.7	175.3
	3분기	1,219.4	416.6	-5.9	1,021.7	220.7	-4.1	197.7	195.9
	4분기	1,324.5	444.7	2.5	1,102.9	243.9	1.7	221.6	200.9
	연 간	4,955.4	1,625.0	-6.0	4,057.2	897.3	-1.8	898.2	727.7
2017	1분기	1,323.7	440.3	18.2	1,159.6	237.3	9.5	164.1	203.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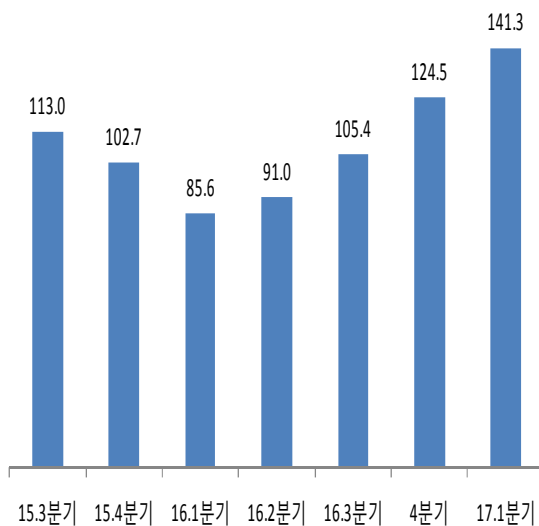
II. 반도체 산업동향

□ 1분기 세계 D램¹⁾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5.0%, 전분기 대비 13.4% 증가한 141.3억 달러

- 비수기임에도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됨
- 타이트한 수급구조가 지속되면서 D램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2배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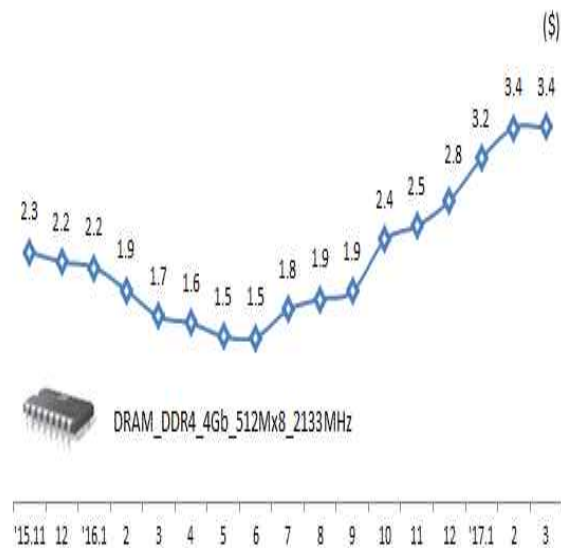
< D램 시장 규모 >

(단위: 억 달러)



< D램 가격 동향 >

(단위: 달러)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Dramexchange

- 우리기업의 시장점유율은 73.5%이며 시장 확대로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60% 이상 증가
-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9.2%, SK하이닉스의 매출은 74.7%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54%, 47%를 달성

1)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일정 주기마다 동작을 가하지 않으면 기억된 정보가 지워지며 가격이 낮아 대용량 메모리로 사용됨

< 세계 D램 시장 규모 및 점유율 >

(단위: 백만 달러, %)

	회사	매출액			시장점유율	
		'17.1분기	'16.1분기	증감	'17.1분기	'16.1분기
1	삼성전자	6,323	3,972	59.2	44.8	46.4
2	SK하이닉스	4,047	2,317	74.7	28.7	27.1
3	마이크론	2,960	1,588	86.4	21.0	18.5
4	Nanya	394	315	25.1	2.8	3.7
5	Winbond	157	157	0.0	1.1	1.8
6	Powerchip	110	100	10.0	0.8	1.2
	기타	134	113	18.6	0.9	1.3
	총합	14,126	8,562	65.0	100.0	100.0

출처: DRAmExchange, Global Revenue ranking for branded Dram Manufactur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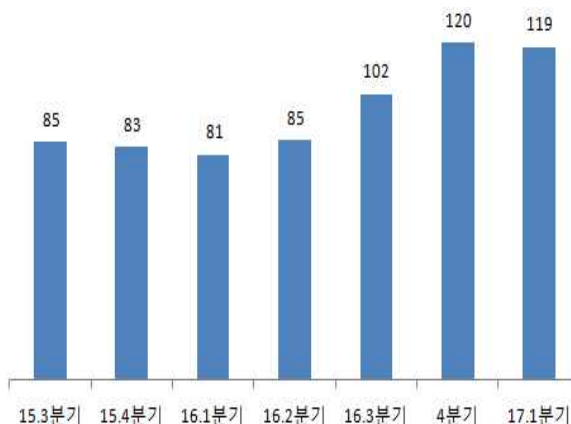
□ 1분기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47.7% 증가, 전분기 대비 0.4% 감소한 119.1억 달러

○ 비수기임에도 수요증가와 가격 강세(전년동기 대비 17% 이상 증가)가 지속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됨

- 삼성전자는 1위를 유지했으나 도시바는 2위에서 3위로 시장점유율이 5.1%p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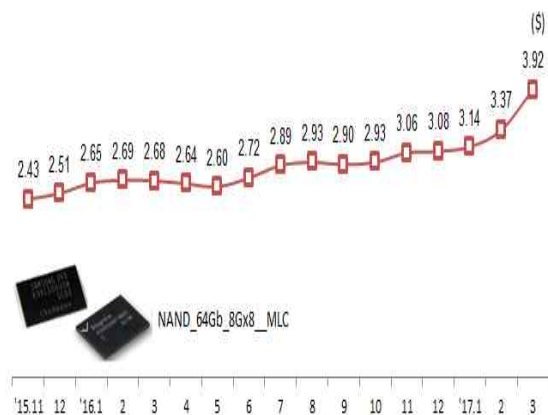
< 낸드 시장 규모 >

(단위: 억 달러)



< 낸드 가격 동향 >

(단위: 달러)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Dramexchange

< 세계 낸드 시장 규모 및 점유율 >

(단위: 백만 달러, %)

	회사	매출액			시장점유율	
		'17.1분기	'16.1분기	증감	'17.1분기	'16.1분기
1	삼성전자	4,216	2,827	1,389	35.4	35.1
2	웨스턴디지털	2,134	1,222	912	17.9	15.1
3	도시바	1,968	1,744	224	16.5	21.6
4	마이크론	1,412	1,074	338	11.9	13.3
5	SK하이닉스	1,313	641	672	11.0	7.9
6	인텔	866	557	309	7.3	6.9
	총합	11,908	8,064	3,844	100.0	100.0

출처: DRAmExchange, Revenue ranking for branded NAND Flash Suppliers

□ 우리기업의 반도체 매출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영업이익도 전년동기 대비 140% 이상 상승

-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고부가 제품 판매(고용량 서버 D램 등)가 증가하면서 매출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15.7조원, 영업이익은 142% 증가한 6.3조원을 달성
- SK하이닉스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한 6.3조원, 영업이익은 317% 증가한 2.5조원을 달성

< 주요 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

(단위: 조원)

	기업	2015		2016				2017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매출	삼성전자-반도체	12.8	13.2	11.2	12.0	13.2	14.9	15.7
	SK하이닉스	4.9	4.4	3.7	3.9	4.2	5.4	6.3
영업 이익	삼성전자-반도체	3.7	2.8	2.6	2.6	3.4	5.0	6.3
	SK하이닉스	1.4	1.0	0.6	0.5	0.7	1.5	2.5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도시바 반도체 사업 매각에 미국, 한국, 대만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도시바의 협력사인 웨스턴디지털의 제소로 매각 지연 가능성도 있음

- 도시바는 '18년 3월까지 지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며 1차 지분 입찰(3월)에는 10개 기업, 2차 입찰(5월)에는 4곳이 참여
 - 2차 입찰에는 미국 통신반도체회사 브로드컴, 미국 사모펀드 KKR와 일본 산업혁신기구²⁾ 컨소시엄, SK하이닉스, 대만 홍하이그룹이 참여
 - 도시바 인수를 통해 브로드컴은 사업다각화, SK하이닉스는 기술경쟁력 제고 및 시장지배력 강화, 홍하이그룹은 수직계열화를 추진
- 도시바의 협력사인 웨스턴디지털³⁾의 제소로 매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 웨스턴디지털은 자사의 동의 없는 매각은 무효라며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에 도시바를 제소했으며 중재에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도시바는 공식 매각 절차와 별개로 웨스턴디지털과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나 지분 매각이 늦어질수록 경쟁사와 기술격차가 확대될 전망⁴⁾

□ 중국기업의 해외 M&A에 대해 각국의 견제가 강화되자 중국은 자체 투자를 통한 역량 확보를 추진

- 기술 유출을 우려한 미국 등이 중국기업의 M&A를 견제하면서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인수가 어려워지고 있음
 - 중국은 2015~2016년에 반도체 M&A에 83억 달러를 투자하여 글로벌 반도체 M&A 시장의 4.1%를 차지⁵⁾
 - 칭화유니그룹의 웨스턴디지털 지분 인수 시도('15)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후 칭화유니그룹은 인수를 포기

2) 일본 민관 펀드

3) 도시바와 일본 요카이치 공장을 공동 운영

4) 삼성전자는 '17년 7월에 64단 3D 낸드 양산을 추진하며 도시바는 2017년 하반기에 64단 3D 낸드를 양산할 계획

5) IC Insight, '2015~2016 Deals Dominate Semiconductor M&A Ranking', 2017.1

-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기업 M&A가 어려워지고 각국의 견제가 확대되자 도시바의 지분 매각에도 참여하지 않음
- 해외 M&A가 어려워지자 중국은 자국 산업 구조조정 및 자체 투자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
 - 대형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2017년 1월 메모리반도체 부문에 7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
 - '18년부터 낸드플래시를 양산을 목표로 우한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설립을 시작하였으며 '20년까지 2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 난징에 300억 달러를 투자하여 3D 낸드와 D램 생산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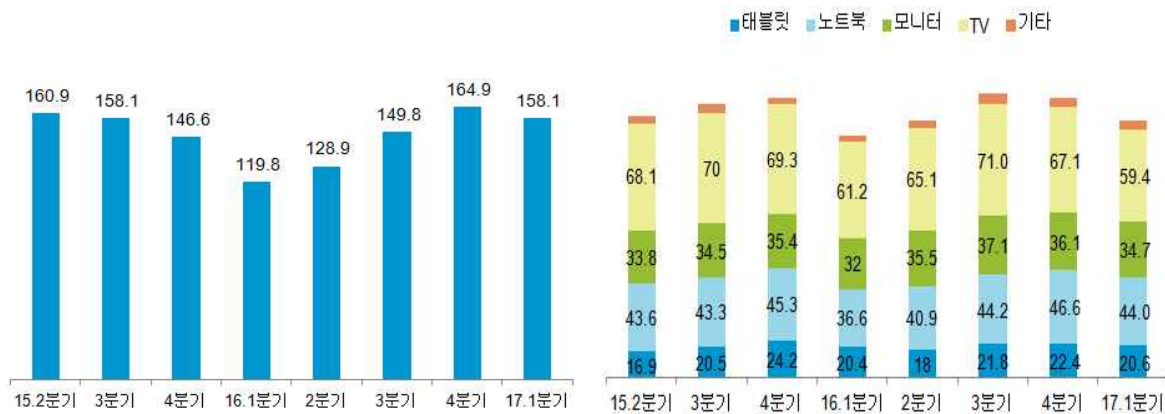
III.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 1분기 대형 LCD 패널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31.9% 증가한 158.1억 달러

- 출하량 증가와 판매 가격 상승으로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
 -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했으며 세트업체들의 재고 축적으로 패널 평균 판매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약 23% 증가

< 대형 LCD 패널 시장 규모 >
(단위: 억 달러)

< 대형 LCD 패널 출하량 >
(단위: 백만대)



출처: IHS

□ 우리기업의 대형 LCD 패널 시장점유율은 43%로 전년동기 대비 4.4%p 하락했으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9% 상승

- LG디스플레이는 1위를 유지했으나 삼성디스플레이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이 하락
 - 삼성디스플레이의 대형 LCD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2% 감소했으며 이는 '16년말 충남 아산의 LCD 7라인 생산 중단(OLED로 전환 목적)으로 인한 생산능력 감소, 대형 패널 생산 증가⁶⁾가 원인으로 추정됨
- 중국 BOE는 출하량 기준으로 2위를 차지하나 평균 판매 단가가 낮아 매출액 기준으로 5위를 차지

6) TV 대형화로 60인치 이상 패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8세대 라인에서 60인치 이상 패널 생산시 면취율이 65% 수준으로 낮아짐

<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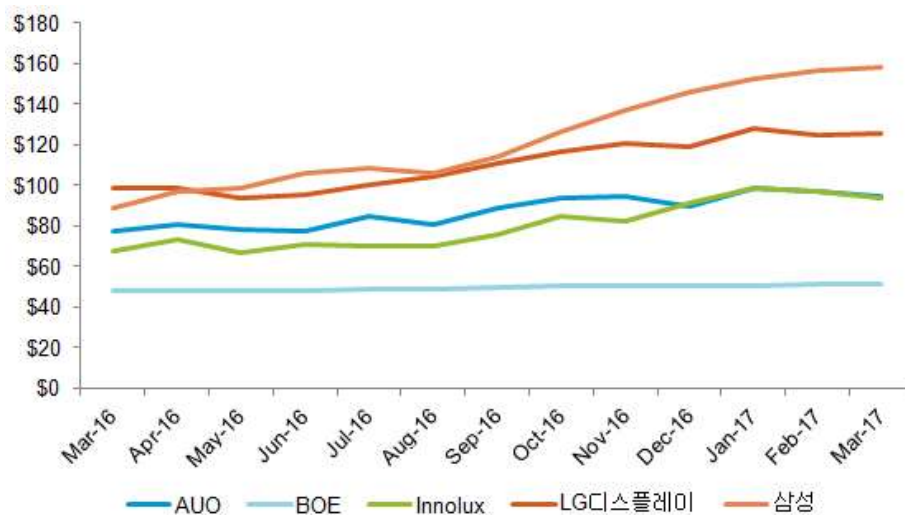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

	회사	2017. 1분기		2016. 1분기	
		매출액	시장점유율	매출액	시장점유율
1	LG디스플레이	4,424	28.0	3,646	30.4
2	AUO	2,624	16.6	1,937	16.2
3	Innolux	2,582	16.3	1,573	13.1
4	삼성디스플레이	2,366	15.0	2,038	17.0
5	BOE	1,782	11.3	1,264	10.5
	기타	2,033	12.9	1,527	12.7
	합계	15,812	100.0	11,984	100.0

출처: IHS

< 사별 대형 LCD 모듈 평균 판매 단가 >

(단위: 달러/unit)



출처: IHS

□ 업황 호조로 우리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

- LG디스플레이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8% 증가한 7.1조원,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1,027억원을 달성
- 용도별 매출 비중은 TV 43%, 모바일 26%, 노트북 및 태블릿 16%, 모니터 15% 순이며 TV와 모바일 매출 비중이 전년동기 대비 5%p, 3%p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

- 삼성디스플레이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1% 증가한 7.3조원, 영업이익은 1.6조원 증가한 1.3조원을 달성
- LCD 생산라인 중단으로 생산 능력이 감소했으나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UHD7, 대형)와 OLED 물량 증가(매출의 60%)가 성장을 견인

< 주요 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 >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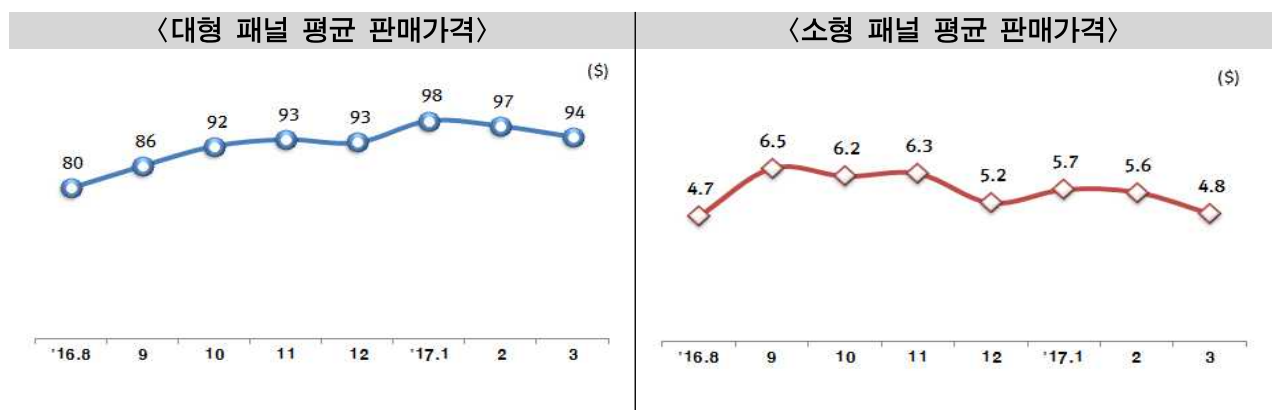
	기업	2015		2016				2017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매출	LG디스플레이	7.2	7.5	6.0	5.9	6.7	7.9	7.1
	삼성디스플레이	7.5	6.5	6.0	6.4	7.1	7.4	7.3
영업 이익	LG디스플레이	0.3	0.06	0.04	0.04	0.3	0.9	1.0
	삼성디스플레이	0.9	0.3	-0.3	0.1	1.0	1.3	1.3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LCD 패널 가격은 2분기부터 가격 상승률이 둔화될 전망

- LCD 생산라인 가동 중단⁸⁾, TV Set업체들의 재고확보로 1분기 LCD 패널 가격이 상승
- 2분기부터 LG디스플레이, BOE, Innolux 등이 8세대 LCD 신규 라인 가동을 시작하여 패널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LCD 패널 가격 추이 >



주 : 대형 패널은 9인치 이상, 소형 패널은 9인치 미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7) UHD(Ultra High Definition)는 약 830만 화소로 FHD(Full 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음

8) '16년말에 삼성디스플레이 7세대, 파나소닉 8세대 등이 가동을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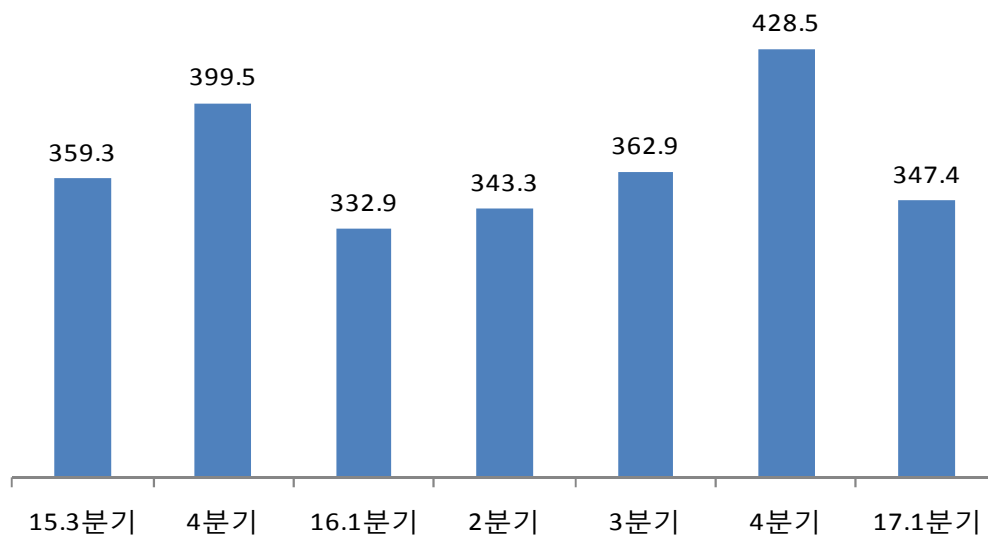
IV. 휴대폰 산업동향

□ 1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한 347.4백만대

- 삼성전자와 애플의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지는 않았으나 개도국 수요 증가로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스마트폰 출하량 >

(단위: 백만대)



출처 :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 삼성전자가 1분기만에 애플로부터 1위를 탈환했으나 출하량 증가율은 0%로 중국 3사의 출하량 증가율 24.8%와 대비됨

- 삼성전자는 전략 스마트폰⁹⁾을 출시하지 않았음에도 중저가 제품 판매 증가로 시장점유율을 방어하며 애플로부터 1위 자리를 탈환
-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삼성전자는 '16년 4분기에는 4년만에 처음으로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으로 하락하면서 애플에게 1위 자리를 내주었으나 갤럭시A, J시리즈 판매호조로 전년동기 수준의 판매량을 달성
- 갤럭시A 시리즈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제공한 방수, 고화질 카메라 등을 채택하면서 판매량이 증가¹⁰⁾했으며 A시리즈보다 가격이 낮은 J시리즈도 인도, 브라질 등에서 판매 호조를 보임

9) 갤럭시S8은 2017년 4월에 출시됨

10) 1월에 갤럭시A5(5.2인치)를 50여개국에 출시한 이후 갤럭시A3(4.7인치), 갤럭시A7(5.7인치)를 출시

- 삼성전자와 애플의 출하량은 전년동기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국 3사의 출하량은 24.8% 증가하며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3.7%p 상승
- 화웨이는 프리미엄 시장은 P와 메이트 시리즈, 중저가 시장은 Y와 Honor 시리즈로 해외 공략을 가속화하며 유럽, 남미, 인도에서 선전
- 오포와 비보는 카메라 기능 강화로 중국 및 동남아시아에서 선전(오포의 해외 출하량 비중은 약 25%)

< 2017년 1분기 스마트폰 출하량>

(단위: 백만대, %)

	회사	2017. 1분기		2016. 1분기		전년동기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삼성전자	79.2	22.8	79.2	23.8	0.0
2	애플	51.6	14.9	51.2	15.4	0.8
3	화웨이	34.2	9.8	28.1	8.4	21.7
4	오포	25.6	7.4	19.7	5.9	29.8
5	비보	18.1	5.2	14.6	4.4	23.6
	기타	138.7	39.9	140.0	42.1	-1.0
	합계	347.4	100.0	332.9	100.0	4.3

출처 :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 1분기는 계절적 비수기로 우리기업의 실적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2분기에는 전략 스마트폰이 출시되어 실적이 개선될 전망

- 삼성전자 IM부문은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 증가, 갤럭시S7의 평가 하락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감소
 -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5% 감소한 23.5조원, 영업이익은 47% 감소한 2.1조원을 달성
- LG전자 MC 부문은 '15년 2분기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영업손실은 2억원으로 개선됨
 - G6 출시(4/17) 및 중저가 제품 판매 호조로 판매량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했으며 매출은 2% 증가한 3조원을 달성

< 주요기업 영업이익 추이 >

(단위: 억원)

	'15. 2분기	3분기	4분기	'16.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7. 1분기
삼성전자 -IM부문	27,600	24,000	22,300	38,900	43,200	1,000	25,000	20,700
LG전자 -MC부문	-192	-963	-609	-2,022	-1,535	-4,364	-4,670	-2

출처: 각사 홈페이지

□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로 애플 및 중국기업의 인도 시장 공략이 가속화되면서 우리기업과 경쟁이 심화될 전망

- 인도는 세계 2위 시장으로 가격경쟁력 제고¹¹⁾, 인도 정부와 우호적 관계 수립¹²⁾을 위해 해외기업의 현지 공장 설립 증가
 - 애플, 샤오미 등 다수 기업들이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계획임
 - 애플은 고가의 제품군으로 인해 인도시장 점유율은 3~4% 수준이었으나 현지 생산('17.5)을 통해 아이폰SE의 가격¹³⁾을 약 50% 인하할 계획
-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기업의 고속성장과 애플의 현지생산은 우리기업에게 위협요인
 - 삼성전자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17년 1분기 시장점유율은 26%로 전년동기 대비 3%p 하락
 - 중국기업은 가성비 좋은 제품과 마케팅 강화¹⁴⁾를 통해 인도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여 '17년 1분기 인도 스마트폰 Top 5 기업 중 4개 기업이 중국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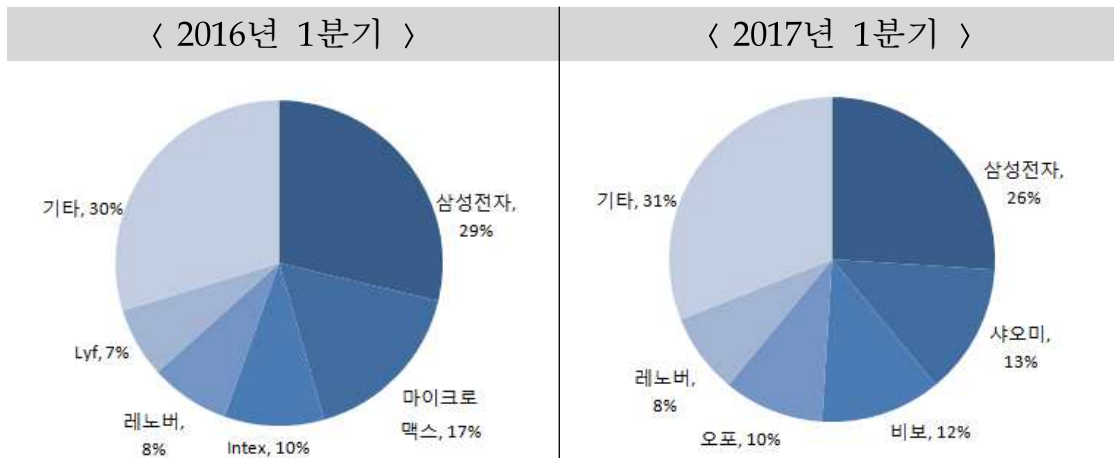
11) '17년 1분기 인도 스마트폰 판매량의 약 80%가 10,000루피 내외(150달러)의 중저가 제품임. 인도 정부는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12.5%의 관세를 부과

12) 모디 총리는 'Make in India' 정책을 추진

13) 아이폰6SE('16.4 출시)의 판매가격은 39,000루피, 현지 생산을 통해 20,000루피로 인하할 전망

14) 샤오미는 온라인 마케팅, 오포와 비보는 판매원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

< 인도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출처 : Counterpoint Research

- 우리기업은 중국 시장점유율 하락으로 인도시장 수성이 중요한 상황이며 기업들은 시장 고도화와 현지화로 경쟁력 제고를 추진

* 삼성전자의 중국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13)19.7→('15)7.6→('16)5

- 삼성전자는 인도 최초의 4G LTE망을 구축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LG전자는 단일 통신사가 전지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듀얼 유심 제품을 출시

< 주요 기업의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전략 >

기업	주요 전략
삼성전자	· 인도 통신사업자 릴라이언스와 인도 최초의 4G LTE 전국망을 구축하며 5G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할 계획
LG전자	· 현지 공장을 임대하여 보급형 스마트폰(K4, K7) 생산('16.4) · 단일 통신사가 인도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는 점에 착안하여 2개 이통사의 USIM을 탑재할 수 있는 제품 출시
애플	· OEM사업자 Wistron은 인도에 조립공장을 설립하고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SE를 생산('17.5)
샤오미	· 현재 인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75%를 현지에서 생산
오포	· '19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자하여 뉴델리에 대규모 생산 단지를 조성할 계획

출처 : NIPA, 코리아헤럴드